

# 보성茶 유럽 진출 발판 마련했다

### 프랑스 2개 업체와 MOU 체결...친환경 쌀·비니거파크 흑초 수출 논의 등 성과도

보성 차(茶)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프랑스로 향한 보성군이 성과를 내고 있다.

보성군은 프랑스 업체들과의 보성 차 유통, 판매 업무협약은 물론 보성 쌀 등 농산물 수출에 시동을 걸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프랑스식품박람회(파리)에 참가한 김철우 보성군수 등 보성군 방문단은 (주)에이스푸드(AceFood SAS), (주)달리우스(Dalious SAS) 등 프랑스 업체 2개 업체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프랑스식품박람회 내 보성군 차생산자조합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번 MOU는 보성 농특산물의 유럽 시장 내 유통 판매와 문화교류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 보성군은 보성 차 수출이 예정돼 있던 에이스마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지에서 친환경 보성 쌀과 비니거파크에서 생산되는 흑초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추후 수출규모에 대한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프랑스 현지에서 문화 교류사업 등을 통한 보성 차문화의 세계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업무협약식에서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보성이 키운 명품 차를 선보이게 돼서 기쁘다"면서 "유통과 문화교류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두 회사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보성 차(茶) 등을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가운데)가 프랑스 식품박람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상호(왼쪽 첫번째) (주)에이스푸드 대표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차를 비롯한 농특산물 수출 교두보를 보성군은 지난달 21일에는 낭트 시내에 위치한 살롱드페에서 보성산 고급 잎차 4종(우전, 세작, 중작, 홍차) 시음회를 열었다.

프랑스 프리미엄 차(茶)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시음회에서 보성군이 준비해간 샘플이 완판되는 등 유럽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보성군은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유럽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보성형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선진 해양레저 시설 탐방과 함께 관련 현지 지자체들과의 상호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SIAL 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보성군 차생산자조합'은 600개 농가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녹차, 홍차, 대용차 가공 및 소싱 대행, ODM&OEM 생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7개 다원에서 생산한 40여종의 다양한 보성 차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몽골 새마을운동 기념행사에서 아리랑 공연을 펼친 곡성 한우리실버예술단. <곡성군 제공>

## 곡성 한우리실버예술단, 몽골서 아리랑 공연

곡성군 어르신들로 구성된 '옥과 한우리실버 예술단'이 몽골에서 아리랑 공연을 펼쳤다.

곡성군에 따르면 '옥과 한우리실버예술단'은 (사)국제문화공연교류회를 통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되는 '새마을운동10주년기념 몽골새마을아리랑콘서트'에서 '아리랑 속의 태극무'와 '김삿갓 몽골에 뒀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울란바타르시 새마을운동10주년기념 새마을본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한우리실버예술단은 '국제봉사상'과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전승길 단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한우리실버예술단원(회원 25명)들의 단합 그리고 한순일 강사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술단은 평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행사에서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알리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2008년 창단한 예술단은 평균 연령이 83세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면민의 날, 장미축제, 심정축제, 노인복지시설, 노인정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재능기부를 실천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한우리실버예술단은 "앞으로도 힘이 닿는 날까지 곡성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민원처리 신속 '일사천리 순천' 이름값

### 군, 개설 한 달 만에 147건 처리...시민 만족도 급상승

순천시 카카오톡을 통해 생활민원을 실시간 접수, 처리하는 '일사천리 순천'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사천리 순천'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내용이 담당부서에 전달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SNS 소통 창구다.

시는 지난달 27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제거, 하수구 맨홀 보수, 가로수 전지, 주차장 위반, 소규모 시설 보수 등 총 147건의 생활

불편민원을 처리했다. 또 정년 포인트, 낙안읍성 입장 관련 문의 등 단 순 민원부터 중앙분리대 파손 수리, 공중화장실 수리 등 수일이 걸리는 민원까지 관련 부서와 바로 협의해 처리 예정 날짜는 물론 조치 완료된 사진 등을 전달해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일사천리 순천'이 간편한 민원 접수와 평균 2일 이내에 민원이 해결되고 1대 1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 불편사항 신고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설한 '일사천리 순천'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하나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 시정이 늘 시민 곁에 있음을 실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일사천리 순천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신고자에 대한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공사 등 생활 불편과 직결된 시정 소식을 수시로 게시해 시민 불편을 사전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유치...2024년 개원

### 도비 40억 등 126억 투입 중마동에 지상 4층 규모

광양시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진>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선정위원회가 실시한 공모 평가에서 입지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접근성, 특화프로그램 영역을 심사해 최고 득점으로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 건축비 40억 원, 운영비 등으로 매년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9월부터 1호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등 5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로 산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26억원(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26억원)을 투입해 2024년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중마동 미래여성지원 인근 부지에 건립되며, 지상 4층 연면적 2409㎡ 규모로 조성된다.

1, 2층에는 전실을 가축실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운영·계획 중인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대비 최대 면적(40~53㎡) 규모로 산모실 15실을 계획했으며, 다태아 산모를 위한 다태아실(53㎡)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압실(53㎡)을 포함하고 있다.

3층에는 각종 프로그램·휴식 공간인 쉼방, 좌욕실, 교육실 등을 계획하고, 4층에는 급식실과 카페의 신생아 손위 형제·자매를 위한 아동놀이실, 옥상에는 플랜테리어로 꾸며진 산책로와 힐링 공간을 계획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 사각지대가 없는 '눈물 없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태아의 건강검진부터 노년 치매 예방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시는 그 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26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미래여성지원,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기관, 6개 단체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와 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홍기 광양시 보건소장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양에 차별화된 고품격 전국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구례군, LED 태양광 골목 센서 호응

### 8개 읍·면에 63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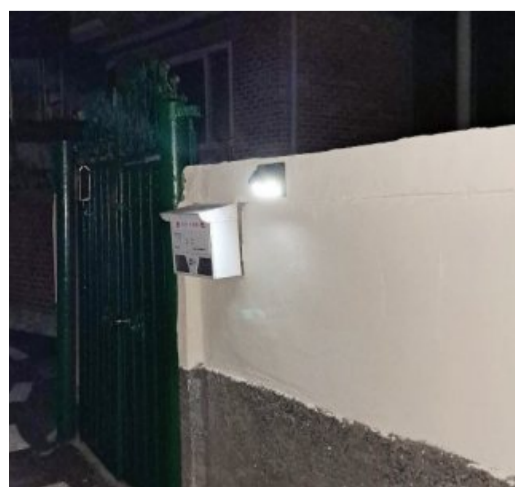
구례군이 지역 8개 읍·면 어두운 골목에 LED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으로 8개 읍·면 복지공동체 50여 명과 연계하여 어두운 골목길에 대형 LED 태양광 센서 등 63개를 설치했다. <사진> 이번엔 설치한 태양광 센서 등은 낮에는 태양광으로 자동 충전되고, 어두운 밤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동작감지용 센서 등이다.

가로등이 없어 골목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어르신 낙상예방, 귀갓길 여성보호, 청소년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마을 주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이번 사업과 같이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구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순천소방, 재난상황 대비 구급대응 훈련

순천소방은 최근 해룡면 소재 순천만잡월드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유관기관 구급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훈련에는 소방공무원과 8개 유관기관 130명이 참석하고 소방차량 등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순천만잡월드 5G체험관 건물 내부에서 화재·붕괴로 인한 30명의 다수사상자가 나온 모의 재난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은 선차 구급대 임시응급의료소 운영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중증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임시영양소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재난 상황은 변수가 많아 지속적인 훈련이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여러 상황을 가정해 훈련과 역량 개발을 통해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몰' 1주년 매출 1억3000만원 '대박'

### 올해 목표 5억 초과 달성...고흥몰 자립기반 마련

고흥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오픈 1주년기념 특별기획전에서 1억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흥군은 고흥몰이 군 직영 쇼핑몰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올해 목표액인 5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자립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주년 기념행사는 품목별 최대 50% 할인판매와 매주 '제철-인기 상품 파격 특가 대행진'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0월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현대리세우, 포장김치, 레드키위가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1월에는 고흥산 배추로 만든 절임배추 사전 예약 판매와 제철 수산물인 문어, 낙지, 가리비, 꼬막 및 고흥유자·석류, 햅쌀, 샤인머스켓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11월1일 제48회 '고흥군민의 날'에는 박지성 공설운동장 행사장에서 고흥몰 부스를 운영해 신규 품목 입점을 홍보하고 주요 인기품목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이벤트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전상품 5~15% 추가 쿠폰 지급과 특가상품 무료배송, 신규 회원가입 시 2000원 적립금 및 15%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광양시,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모집

광양시가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기업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지역인재 신규 채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기업 모집기간은 1~14일이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며, 1인당 5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기업체 후생복지비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061-797-2816)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